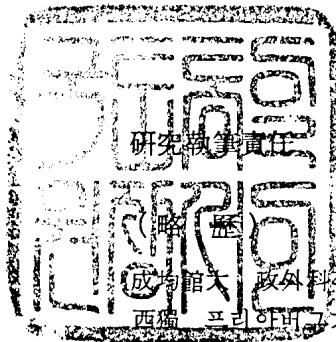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
임.
-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
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東西獨關係를 모델로 한
南北韓間 社會文化分野의 交流協力對策



研究敎養責任 金 淵 洙

(成均館大 政外科卒 (1963))

西獨 프랑크푸르트大卒 政治學碩士 (1966)

西獨 키일大卒 政治學博士 (1968)

西獨 키일大 法大敎授 (現在)

大邱大學校 敎授兼 東·西歐問題研究所長 (現在)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要 約 文>

I. 東·西獨間的 社會文化 交流

(1) 社會文化 交流

- 協定： 1964 년이래 東獨의 수차례 걸친 文化協定 締結要求에 호응을 보이지 않았던 西獨은 브란트政府의 東方政策을 계기로 1972 년 12 월 21 일 東獨과 ‘東·西獨基本條約’을 맺고 이에 의거하여(同條約 第 7 條) 文化協定 체결을 위한 會談을 1973 년이후 1978 년까지 6 차례에 걸쳐 진행해 왔음. 그러나 여러 制約要件(東獨側의 西獨 ‘프로이센 文化財財團’에 소장된 文化財 返還要求)으로 인하여 아직 協定締結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現況： 政治的 理由(蘇聯의 아프칸侵攻등)로 해서 교류가 制約을 받던 시기도 있었으나, 國家的 차원이 아닌 民間次元에서의 文化交流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음.
특히 交流初期段階에서 西獨內 共產黨(DKP)의 중개역할이 컸다는 사실은 특이한 사항임.
- 特 徵
 - 民間次元의 交流
 - 非政治的 交流
 - 文化交流의 政治的 惡用： 東獨이 西獨으로부터 國家的 承認을 받으려는 政治的 수단으로써 文化協定의 체결을 요

구한 점, 蘇聯의 아프칸侵攻直後 文化交流 중단 및 東獨
國籍 인정을 이유로 한 西獨公演 禁止事例 등

(2) 스포츠 交流

- 協定 : 1949년에 民間團體인 스포츠協會에 의해 스포츠交
流가 개척되었고 '56년 멜본올림픽大會, '60년 로마올림픽大
會, 64년 東京올림픽大會 등 3번에 걸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한 바 있으며 1974년 5월 8일에 스포츠議定書를 체결
하였음.
- 現況 : 1974년 이후 매년 東獨의 '獨逸體操 및 스포츠協
會'와 西獨의 '獨逸스포츠協會' 간에 교류종류와 회수를 합
의하여 교류가 진행되는 바 1982년 開催件數는 78건에 이
르고 있음.
- 特 徵
 - 西獨은 스포츠交流를 統獨政策의 일환으로 삼고, 교류진행
시 東獨에 유리한 종목을 우선 개설하게 하여 東獨이 호
응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國家次元이 아닌 民間스포츠協會 차원의 교류라는 原則을
엄수하여 政治的으로는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왔음.
 - 게르만의 民族的 矜持強化에 貢獻

(3) 郵便 및 電信交換

- 協定 : 1966년말 東獨이 西獨 遞信部와 西베를린市에 郵

便料金 및 電信使用料를 요구함으로써 시작된 會談은 1971年 9月 30日 ‘郵便 및 電信關係議定書’ 체결과 더불어 兩國의 郵便技術 開發을 가져왔고 1976년에 체결된 ‘郵便 및 電信協力協定’ (電信制度 및 郵便交換에 관한 協定, 電信交換에 관한 協定, 郵便 및 電信中繼料에 관한 協定)을 중심으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現況 : 東·西獨間의 郵便 및 電信交換은 현재 거의 正常化 단계에 있음.
- 特 徵
 - ideology를 초월하여 분단된 게르만民族의 비극을 해소시키려는 民族的 요구하에 兩側이 상호 협력하고 있어서, 東獨도 이를 政治的 수단으로 악용한 적이 없었음.
 - 兩獨間 遞信事業에 필요한 技術開發 및 施設擴張費用은 西獨側이 부담하는 것이 특징임.

II. 南北韓間의 社會文化 交流

- 文化藝術 交流 : 우리측의 南北韓間 古美術品 相互交換展示會, 考古學 및 美術史分野에서의 物物交換 및 民族史의 共同研究 提案등을 北韓側이 거절
- 스포츠 交流 : 南北韓間 스포츠交流, 南北韓間 탁구단일팀 構成問題 및 南北韓 올림픽단일팀 構成問題를 北韓側이 政治的

으로 악용하여 거부함.

- 郵便 — 電信交換 : 20 個 示範事業의 일환으로 離散家族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提議하였으나 北韓側이 거절.

Ⅲ. 南北韓間 社會文化 交流方案

- 南北韓間 社會文化 교류의 前提條件
 - 韓國政府는 交流政策을 反共的 對北宣傳用的 觀點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民族和合을 위한 民族主義的 立場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함.
 - 北韓에 대한 社會文化의 開放이 先行되어야 함.
- 南北韓間 社會文化 交流方案
 - 政府가 아닌 民間次元에서의 交流 : 政府가 아닌 民間機關이 교류를 주도해 나가야 하며, 政府가 政治的으로 이를 악용하는 것은 피해야 함.
 - 非政治的 社會文化 交流 : 스포츠交流는 國家代表팀간보다는 大學이나, 高校 혹은 地域代表팀간을 중심으로 非政治的 차원에서 시작하며, 競技種目은 北韓이 자신있는 種목을 채택할 수 있게하여 韓國과의 교류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유도해 나가는 한편, 學術(특히 非社會科學分野), 美術, 文學, 映画, 演劇 등의 교류는 非政治的 作品과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임.

- 一 第3國을 통한 간접적 교류를 피함으로써 直接交流가 가져다 줄 충격이나 불안을 사전에 이완시켜 나가야 할 것임.

IV. 結 論

南北韓 社會文化 交流方案에 있어 決定的 問題는 南北韓의 적대적 관계와 불신관계의 해소인 바, 韓民族의 비극을 해소한다는 숭고한 使命感이 南北韓 兩政府의 의지에 반영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社會文化 交流의 成功與否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目 次

I. 序 論	9
II. 東·西獨間 社會·文化交流	10
가. 東·西獨間 文化·藝術交流	10
1. 東·西獨間 文化協定會談	10
2. 東·西獨間 文化交流現況	13
3. 東·西獨間 文化交流의 特徵	17
(1) 民間次元의 文化交流	17
(2) 非政治的 文化交流	17
(3) 文化交流의 政治的 惡用	18
4. 分野別 交流實態	18
나. 東·西獨間 스포츠交流	26
1. 東·西獨間 스포츠交流協定	26
2. 東·西獨間 스포츠交流現況	28
3. 東·西獨間 스포츠交流의 特徵	30
(1) 民間스포츠機關間的 交流	30
(2) 게르만民族의 矜持強化	30
(3) 스포츠交流의 非政治化	31
다. 東·西獨間 郵便 및 電信交換	32
1. 東·西獨間 郵便電信交換協定	32
2. 東·西獨間 郵便電信交換現況	34
3. 東·西獨間 郵便電信交換의 特徵	35

Ⅲ.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	36
가. 南北韓間 文化·藝術交流	36
나. 南北韓間 스포츠交流	37
1. 南北韓間 스포츠交流問題	38
2. 南北韓 卓球單一팀 構成問題	40
3. 南北韓 올림픽單一팀 構成問題	43
(1) 「東京올림픽」派遣單一팀 構成問題	43
(2) 「모스크바올림픽」派遣單一팀 構成問題	45
(3) 「로스앤젤레스올림픽」派遣單一팀 構成問題	45
(4) 「서울올림픽大會」를 위한 南北韓 單一팀 構成問題	47
다. 南北間 郵便·電信交換	47
Ⅳ.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方案	50
가.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의 前提條件	50
1. 民族和合을 위한 民族主義的 政策開發	51
2. 北韓의 社會·文化 開放	52
나.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方案	53
1. 政府가 아닌 民間次元에서의 交流	53
2. 非政治的 社會·文化交流	54
3. 間接的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	56
Ⅴ. 結 論	58

I. 序 論

韓半島가 1945년 외세에 의하여 分斷이 된 이후 처음으로 北韓은 어떤 部分的 해결의 現實的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실은 지난 8월 20일 韓國이 提議한 對北韓生活物資 提供을 거부했던 北韓이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韓國에 水災民 救護物資를 提供함으로써 보여준 北韓의 유연성있는 對韓政策에 호응한 韓國政府가 제안한 南北韓 經濟協力會談과 南北韓 赤十字會談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날까지의 협상 분위기는 肯定的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南北韓間 社會·文化 交流가 대두할 것은 분명한 사실인바, 우리는 나방면에 걸쳐 交流協力方案을 研究·檢討한 후, 北韓에게 南北韓 社會·文化交流를 위한 南北對話를 提案하여 南北協商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本 研究는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의 方案研究를 그目的으로 하는데 研究方法로서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東·西獨間 社會·文化交流의 協商過程, 現況 그리고 特徵을 獨逸資料에 의해 규명한 후 南北韓 경우와 比較하는 方法을 택한다. 왜냐하면 比較研究를 통해서 南北韓間 社會·文化 交流問題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선 東·西獨間 社會·文化 交流問題를 調查·分析하기로 하겠다.

Ⅱ. 東·西獨間 社會·文化交流

東獨과 西獨間 社會·文化交流의 發展過程, 現況 그리고 그 特徵을 연구하는 것은 韓國과 北韓間 社會·文化交流가 아직까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原因을 규명하는데 절대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分斷國家 韓·獨問題를 비교·연구하면 그 問題性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東獨과 西獨과의 社會·文化交流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교류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겠다.

가. 東·西獨間 文化·藝術交流

東·西獨間 文化交流의 特徵은 양국간의 文化協定이 없지만 非政府機關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1. 東·西獨間 文化協定會談¹⁾

東·西獨政府間 文化協定會談은 1973년 11월 27일에 정식으로 개최되었으나 실은 그전에 東獨의 會談提案이 있었다. 그러나 西獨政府가 「호응」을 하지 않으므로써 성사하지 못했었는데 실례로 1964년 9월 21일 獨逸民主共和國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c), 즉 東獨文化相 「한스·벤진」(H. Benzin)은 西獨의 各州 文教長

註1)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편): DDR - Handbuch, Köln, 1979, pp.20 ~ 27 참조.

官들에게 서한을 보내 양독간의 「文化協定」체결을 제안하였으나 西獨 「아데나워」(K. Adenauer) 政權은 東·西獨間의 文化交流는 「國民 個人 또는 民間團體間의 상호교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로써 거절을 하였고, 다시 1966년 7월 西獨에 대해 文化協定會談을 제안하였으나 西獨이 또다시 거절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東·西獨關係도 西獨 「브란트」(W. Brandt) 政府의 東方政策(Ostpolitik)이 성공함으로써 급속도로 호전이 되기 시작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결과는 1972년 11월 9일 西獨의 「본」(Bonn)에서 假調印을 하고 같은해 12월 21일 東獨의 東柏林(Ost-Berlin)에서 正式調印을 한, 「東·西獨 基本條約」으로, 특히 同 條約 第 7條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第 7條 —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兩國間의 關係正常化를 위한 방향으로 실질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문제들을 협의할 의사를 천명한다.

兩國은 基本條約의 바탕 위에서 經濟, 科學, 技術, 交通, 郵便, 保健, 文化, 스포츠, 環境保護 및 그밖의 에 대한 協調와 증진을 위한 協定을 체결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선 協定條約 附則에 明示한다」

그리고 「東·西獨 基本條約」第 7條에 관한 附則 7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7項－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문화적인 협조를 발전 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目的을 위해 兩國은 政府間 協定을 체결할 것이다.」

이 原則에 따라서 1973년 11월 27일에 東獨의 수도 「東베를린」에서 兩獨政府間 第1次 文化協定會談을 개최한 후, 1975년까지 5차의 會談을 소집하였으나 이렇다할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특히 제3차 東·西獨 文化協定會談이 실패한 직후인 1975년 3월 5일 東獨政府는 자신들의 官營通信社 「ADN」을 통해 「프로시아文化財財團」(Stiftung Preussischer Kulturbesitz)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75년 6월 19일에 개최된 제4차 東·西獨 文化協定會談에서 西獨은 東獨의 요구에 대응하여 「原則적으로 戰爭關係로 이 전된 문화재의 相互交換問題에 관한 會談은 동의하나, 「프로시아文化財財團」의 소장품은 會談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西獨側 주장은 이 「프로시아文化財財團」의 소장품에 관해선 聯合國間에 國際法的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그래서 같은해 10월 29일에 개최된 제5차 東·西獨 文化協定會談에선 兩獨政府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會談의 再開原則에는 합의했으나 제6차 會談日字는 정하지 못한 채 폐회하고 말았다.

그러나 중단된 東·西獨間 會談도 1982년 9월 13일 西獨首相室長官 「비쉬네브스키」(Wischnewski)가 東獨을 訪問, 東獨의 국가원수 「호네카」(E. Honecker)와의 會談中 文化協定會談의 재개를 제

안, 특히 「프로시아文化財財團」所藏品問題를 회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原則에도 同의를 받아냄으로써 會談再開의 時日問題만 남게 되었다.

특히 1982년 12월 11일~13일 東獨의 「베어베린제」(Werbelleinsee)에서 개최된 西獨 「슈미트」(H. Schmidt)首相과 東獨 統一社會黨 書記長 「호네카」간의 東·西獨間 頂上會談에서 「兩側은 文化的 協力の 계속적인 발전과 다른 분야에서의 교류확대의 가능성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東·西獨間的 文化的 그리고 社會的 生活의 相互協力を 개발하기 위하여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확대」하기로 합의를 보았던 것이다.²⁾

이어서 1982년 12월 西獨首相室 「예닝거」(Jeninger)長官이 東獨을 방문, 文化協定會談의 再開를 제안함으로써 1983년 9월 20일 東·西獨間 文化協定會談이 다시 열렸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태에 있다.

2. 東·西獨間 文化交流現況

東·西獨間 文化交流協定은 상술한 바와 같이 오늘 이 시간까지 체결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文化政治的 事實은 兩獨間에는 비록 文化協定이 체결되지 않았다 치더라도 東獨과 西獨間에는 民間, 다시말해 政府次元이 아닌 民間次元

註 2) Neues Deutschland (東獨), 1982년 12월 14일자와 H. Kleinschmidt : Grenzziehungen der Obrigkeit, Deutschland Archiv (西獨), 1983년 1호, pp.11~15 참조.

에서 문화교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東·西獨間 初期文化交流에는 西獨 國民의 지지를 못받고 있는 西獨內 共產黨 DKP의 중계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³⁾

여기에 70년대 말기이후 오늘날까지의 東獨과 西獨間의 문화교류를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요약을 한다면 그 始發點은 1977년초 東獨의 수도인 「東伯林」(東Berlin)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西獨의 「科學과 技術寫眞展」이다. 그러나 東獨政府에 의한 文化政策의 강화관계로, 兩獨 문화교류가 발전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데, 실제로 東獨文化政策에 대항하는 중견작가 「베게너」(B. Wegener)와 「슈레링거」(K. Schleringer)의 작품은 출판금지가 되는가 하면 「바르취」(K. Bartsch)는 「東獨作家同盟」에서 제적당했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런 政策에 도전하는 가수 「비어만」(W. Biermann)은 東獨에 의하여 國籍까지 박탈을 당했던 것이다.

그러자 「東獨作家同盟」은 議長 「칸트」(H. Kant)를 중심으로 作家들과 東獨 「호네카」政權間의 관계를 중재, 화해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1978년 여름엔 그간에 出版禁止되었던 「물러」(H. Müller)의 작품인 「Der Bau」(건축)과 1977년에 西獨으로 亡命한 「크루그」(M. Krug)의 작품인 「Das Versteck」(숨김)이 영화화되었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9월에는 「東獨作家同盟」에서 제적된 대표적인 작가 「헤임」(S. Heym)에게 西獨에서 개최되는

註3) K. Thomas : Die bildende Kunst der DDR am Beginn der achtziger Jahre, Deutschland Archiv, 1981년 6호, p.595 참조.

「2次世界大戰中の 배라宣傳」展示會 參加를 허가하였다.

특히 西獨의 「차르부룩겐」(Saarbrücken), 「두이스부르크」(Duisburg), 그리고 「브레멘」(Bremen)에서 개최된 「第1次 獨逸民主共和國映画祭」는 西獨의 大作家 「그라스」(G. Gras) 原作에, 「쉬론도르프」(V. Schlöndorffs) 作品인 영화 「Die Blechtrommel」(쇠북)의 東獨 公演이 「2차대전중 蘇聯軍의 독일여인 강간」장면이 反蘇的이란 이유에서 취소가 됨으로써 심리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기는 하였지만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1979년말에서 80년초에 蘇聯의 아프카니스탄侵攻으로 美國과 蘇聯關係가 악화되는 동시에 東獨의 對西獨政策도 변하기 시작하였는데 1980년 10월엔 東獨國家元首 「호네카」는 「게라」(Gera) 演說에서 東獨의 對西獨政策은 「바르샤바軍事同盟國의 對西方政策, 즉 蘇聯의 平和政策原則」과 一致한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西獨에게 「東獨國籍의 認定」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兩獨關係가 악화됨으로써 西獨國務長官 「후온카」(Huonker)가 東獨의 「드레스덴」(Dresden) 訪問을 취소하자, 東獨은 대표적인 작가 「칸트」(H. Kant)와 유명한 쌍쌍가수 「탈하임」(B. Thalheim)양의 西獨訪問 허가를 취소하는가 하면, 11월 11일엔 東獨 統一社會黨 政策理論家 「하거」(H. Hager)가 「西獨內 帝國主義的 階級の 社會主義的 東獨文化에 대한 비난」을 경고하더니, 대표적인 작가들인 「에어빈」(T. Erwin), 「라테노브」(L. Rathenov), 「마티스」(F. Matthies)등을 西獨에서 그들의

작품을 출판했다고 체포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프카니스탄問題로 긴장되었던 東·西獨關係가 兩政府間의 直接會談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하자 東獨의 對西獨文化政策도 호전되기 시작하였는데, 실례로 1981년 3월 東獨 「28작가」들의 작품 135점의 「파리現代美術館」(Musée d'Art moderne) 展示會에 이어서, 11월 28일엔 東獨 라이프지히 (Leipzig) 美術大學 「하이제그」(B. Heisig) 教授의 個人美術展이 西獨 「하노바」(Hannover)의 「브르스베르그」(Brusberg) 화랑에서 개최되었던 것이다.

그후 1982년 가을엔 西獨의 建築展覽會 「도시공원 - 공원도시」(Stadt park - Parkstadt)가 東獨에서 개최되었고 11월에는 東獨의 「신켈 (Schinkel) - 展覽會」가 西獨의 「함부르크」(Hamburg)에서 개최되었는데, 이와 관련되는 중요한 東·西獨間 문화교류를 보면 당시 西伯林 (西Berlin)의 市長 「호겔」(Vogel)이 東獨政府에게 西伯林에 있는 宮殿 다리의 「신켈」 조각품들을 반환하였는데 이의 應答으로써 東獨은 西伯林에게 국립도자기공장 (KDM) 문서들을 반환 기증하였던 것이다.⁴⁾

이로써 東·西獨間 文化交流는 새로운 발전을 맞이하였는데 오늘날 東·西獨間 展示會 상호개최와 예술인들의 상호교환 공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註 4) P. Winters : Nereinbarungen und Nerhandlungen mitder DDR im Gefolge des Grundlagenvertrages, Deutschland Archiv, 1982년 12호, pp.1310 ~ 1311 참조.

3. 東·西獨間 文化交流의 特徵

우리는 지금까지 東·西獨間 文化交流의 現況을 重要사건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는데, 그 特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1) 民間次元의 文化交流

東·西獨間 文化交流의 첫번째 特徵은 양독정부가 文化交流 協定締結에는 실패하였으나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의 文化交流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2) 非政治的 文化交流

東·西獨間 文化交流의 두번째 特徵은 이 문화교류가 政治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獨逸이 비록 1945년에 분단이 되어 2개의 게르만民族國家, 즉 半國家가 설립되었다손 치더라도 게르만民族은 분단이 안되었다는, 다시말해 東獨人民도 東·西獨이 再統一하는 즉시 西獨의 國民이라는 관점에서 民族團합을 고수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西獨은 東獨과의 문화교류의 정치화를 절대로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東獨은 西獨으로부터 國家的 승인을 받는 한 政治的 手段으로써 東·西獨間 文化協定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이에 불응하고 있던 西獨政府는 東·西獨關係가 1972년에 체결된 「東·西獨 基本條約」에 의하여 특수관계임이 확정되자 東獨 政府의 제안에 호응함으로써 兩獨間 文化協定會談을 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特記할 사실은 이런 東獨과 西獨間의 文化協定會談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非政治的 文化交流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3) 文化交流의 政治的 惡用

東獨政府는 對西獨 文化交流를 政治的 수단으로 악용코자 수
차 시도하였는데 예를 든다면 비관적인 文學家나 藝術家들의 서독
공연을 政治的 이유에서 不許하는가 하면 西獨과의 文化交流를 정
치적 이유로 중단시키기를 주저하지 아니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蘇
聯의 아프카니스탄 侵攻直後 文化交流 중단과 서독의 東獨國籍 인
정을 이유로 한 서독공연금지 등이다. 다시말해 東獨政府가 東·西
獨間 문화교류를 政治的으로 악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4. 分野別 交流實態

1963년 12월 17일 第1차 通行協定(西베를린 - 東獨當局間 協
定) 조인전까지는 東獨側의 통제로 말미암아 文化藝術分野의 교류
가 부진했으며 초기에는 西獨의 民間文化藝術團體가 東獨을 방문하
는 形式을 통해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東獨側은 第1次 通行協定 체결이후부터 音樂, 演劇, 學術
分野에 대한 완화가 있었는데 交流實態는 다음과 같다.

(音 樂)

- 1962년 西獨 音樂인들이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바하祝祭와 헨
델祝祭 參加
- 1964년 西獨의 폴크방발레단 東獨訪問 공연
- 1964년 東獨 드레스덴管絃樂團 西獨訪問 공연

○ 1964 년 東獨 게반트 하우스 管絃樂團 西獨訪問 공연

○ 1965 년 東베를린 희극오페라단 西獨訪問 공연

(同 團員 상당수가 공연후 歸國拒否)

(演 劇)

○ 1964 년 힐데하임劇團, 막데부르크劇團 東獨訪問 공연

○ 1964 년 東베를린 獨逸劇團의 西獨訪問 공연

(學 術)

○ 1962 年 東獨 바이마르에서 개최된 괴테協會 總會에 西獨文化
人 참석

○ 1964 년 東獨 바이마르에서 개최된 괴테協會 總會에 西獨文化
人 참석

○ 1964 년 東獨 山林人協會 (프라이베르크 개최) 에 西獨學者 참
석

○ 1964 년 東獨 바이마르에서 개최된 醫師協會 總會에 西獨醫師
참석

○ 1965 년 東獨 마르테부르크에서 개최된 한스歷史學會에 西獨歷
史學者 참석

○ 1965 년 東獨 山林人會議 (프라이베르크 개최) 에 西獨學者 참
석

○ 1965 년 東獨 할레에서 개최된 獨逸 아카데미年次總會에 西獨
科學者 참석 강연

이와 같이 1964 년과 1965 년에 걸쳐 兩獨間에는 文化藝術交流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東獨側이 1964년 9월에 이어 1966년 7월에 다시 文化協定 締結을 제의한데 대하여 西獨側에서 이를 거부하자 東獨側은 文化交流를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西獨에 社民黨政權이 수립되자 東獨은 文化藝術分野의 交流制限을 완화하여 1970년도부터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東·西獨 基本條約 체결이 후에는 더욱 促進되어 1982년도에는 300회 이상의 演劇, 音樂會, 獨奏會등이 交換公演되었으며 1977년~1982년간 西獨側은 東獨에 518편의 영화필름을, 東獨은 782편의 필름을 西獨側에 제공하였다.

(言論人 交流)

東·西獨 分斷以後 西獨은 東獨言論人들에게 제 3國 言論人과 동일한 조건하에 西獨內에서의 報道活動을 허용함으로써 東獨言論人들이 西獨內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으나 言論人들의 西獨亡命등을 우려한 東獨當局 스스로의 제한조치로 말미암아 5~6명의 言論人만을 과견하였을 뿐이다.

한편 東獨은 1972년까지 西獨 言論人들의 東獨內 取材活動 조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西獨言論人들의 東베를린 및 東獨內 취재활동은 할 수 없었다.

基本條約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西獨과 西베를린 言論人들의 취재활동에 대한 規制緩和가 이루어져 몇몇 특파원들이 協商中인 兩獨 次官들과 東베를린에서 회견할 수 있었고 회담 분위기에 대한 보도도 가능했다.

基本條約이 서명되기 이전인 1972년 12월 몇개의 西獨 言論機關이 東베를린 지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東獨 外務省 言論擔當 관계자들과 접촉을 개시하였다.

基本條約 체결과 관련하여 1972년 11월 8일 東·西獨間에는 公翰交換을 통해서 言論人 취재활동 조건에 관한 규정을 확정되었는데 언론인들이 다른 나라 특파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權利는 東·西獨 언론인들이 상대방 國家의 규정을 상호 준수할 것을 前提로 한 것이었다.

東·西獨 政府는 1973년 2월초, 公翰交換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個別問題調整專門家會議”가 개최되어 西獨 특파원들이 東獨에서 취재활동을 할 때에는 東獨側이 마련한 1973년 2월 21일자 “여타 國家言論機關과 그 특파원들의 東獨內 취재활동에 관한 규정”과 이에 부속된 시해규정을 준수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西獨 특파원들은 “東獨과 그 國家機關 및 指導級人士, 東獨 同盟國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명예를 毀損해서는 안되며”, “진실성 있고 사실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報道할”義務를 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基本原則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특파원은 경고를 받거나 취재활동 허가가 취소되었다.

1976년 6월 1일부로 西獨과 其他 國家에서 파견된 特派員들의 東獨內 취재활동이 상당히 완화되었는바, 특파원의 부인들은 경계선을 통과할 수 있는 境界線推薦書와 言論人證明書를 쉽게 지급받게 되었으며 西베를린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는 특파원의 자녀들은 特別

學生비자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특파원들이 公報室과 직접 접촉할 수 있게 되었으나 外務省과의 직접 접촉만은 여전히 제한하였다.

東獨側의 規制措置로 말미암아 東獨에서 취재활동중인 西獨 특파원의 업무에 관해서 東·西獨間에는 여러 차례의 의견충돌이 발생하였으며 東獨側으로부터 警告 退却措置를 당했으며 사무실마저 閉鎖당했다.

1975년 12월에는 슈피겔紙 특파원 베즈케 기자가 東獨의 言論人 規定違反 혐의로 추방되었으며, 1976년 12월에는 제1 텔레비존 常駐 特派員 레베 기자가 東獨國民과 政府를 비방하였고 內政問題에 간섭하였으며 東獨 法規範을 고의적으로 저촉하였다는 이유로 추방당하였다.

1978년 1월 슈피겔紙가 東獨 社會民主統一黨內 反對派의 聲明書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슈피겔紙 東베를린 사무실이 閉鎖되었으며 同紙 특파원의 東獨內 取材活動이 금지되었다.

東獨은 1979년 4월 11일부로 1973년 2월 21일자 언론인규정에 대한 새로운 施行令을 制定發表함으로써 言論人들의 取材活動 조건을 강화하였다. 즉 西獨 言論人들은 베를린 외부로 여행할 경우 24시간전 外務省에 旅行 目的地와 旅行理由를 신고토록 하였으며 모든 종류의 회견과 심문은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였다.

1982년말 현재 서독 17개 언론기관(日刊紙, 週刊誌, 通信社, TV, 라디오放送)에서 19명의 常駐特派員을 東獨에 파견하고 있고 라이프치히博覽會, 體育競技등 각종 행사에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東

獨은 6명의 특과원을 西獨에 파견하여 취재활동을 하게하고 있다.

(出版物 交流)

東·西獨間의 出版物交流 즉 學術書籍, 專門書籍, 文學書籍, 娛樂書籍의 상호교류는 분단 이래 계속 유지되어 왔다. 出版物의 상호교류는 기증형태와 서적상을 통한 內獨交易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寄贈形態란 東·西獨間에서 출판되는 모든 서적은 납본제에 의하여 상호 송부하여 주는바 西獨에서 출판되는 모든 서적은 라이프지히 獨逸圖書館과 東베를린 獨逸圖書館에 증정본과 편찬서를 송부하며 東獨 출판물들은 프랑크푸르트圖書館에서 기증받아 西獨內 各圖書館에 배포하여 주고 있다.

東獨 출판물은 西獨書店街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으나, 東獨住民들은 西獨 또는 西方國家 출판물을 구하려면 文化省의 허가를 득하여야만 한다.

출판물 교류를 위해서 西獨出版協會와 東獨出版協會間에는 1956년초에 상호 出版物展示會 개최에 합의하고 東獨의 라이프지히春季博覽會에서 出版物展示會를 개최한바 있고 東獨의 300 출판권자가 프랑크푸르트, 브레멘, 하노바 및 엡센에서 展示會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60년에는 西獨 뒤셀돌프에서 出版物展示會를 갖기로 한 東獨出版社가 東獨의 正式國號를 들고나옴으로써 호칭문제 시비로 전 사회가 취소된 적도 있다.

兩獨間 교역에 있어서 출판물 교역은 文化的 이유로 특별한 지

위를 갖고 있다. 1960년 8월 16일 出版協會間에 합의된 印刷物 交換物品目錄에 따라 10,000 VE 이하의 소규모의 學術書籍 및 잡지의 경우 清算計定 去來方法이 아닌 방법, 다시말해서 名文化된 契約書의 제출없이 허가받을 수 있는 特惠가 부여되어 있다.

한편 서독이 1968년초 東獨 日刊紙의 자유로운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西獨에서는 東獨 黨機關紙 노이에스 도이취란트 등 日刊紙와 週刊誌, 月刊誌 등 定期刊行物を 구독할 수 있다(1971년에는 매일 66종, 2,800부의 日刊紙와 매월 2,200부의 週刊 및 月刊誌가 東獨에서 西獨으로 유입). 1981년 內獨交易에서 圖書 및 定期刊行物 交易은 4,360 만 VE (西獨輸出 3,140 만 VE 輸入 1,220 만 VE)에 달했다.

- * 東獨에 거주하는 작가는 그들의 作品이 東獨에서 出版이 不許당하면 이를 西獨에서 出版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東獨作家들의 西獨移住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TV 및 放送聽取)

東獨當局은 일찍부터 東獨住民들이 敵對階層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하게 하였지만, 自由世界の 라디오放送 聽取만큼은 규제하지 못했다.

東·西獨의 黑白TV는 다같이 PAL式으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體制이며, 실제로 東獨住民의 약 95%가 쉽게 西獨 TV를 시청할 수 있다. 西獨이나 西베를린의 送信裝置는 東獨의 드레스덴이나 로스톡등 오지를 제외한 東獨 全地域에 미치고 있으며 西獨

TV를 시청할 수 없는 이들 地域에서는 西獨 라디오放送을 많이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東獨 TV放送은 그 有效視聽 範圍關係로 西獨住民의 1/4만이 東獨 TV放送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을 뿐이다. 東獨의 중파라디오와 단파라디오는 強力한 送信裝置로 말미암아 全 西獨地域을 망라함으로써 獨逸國民들은 자유롭게 東·西獨의 TV 및 라디오放送을 시청하고 있다.

(宗教交流)

終戰直後 獨逸信仰生活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獨逸福音教會는 西獨에 29개 教區와 東獨의 8개 教區로 構成되어 있었고 이밖에 루터派聯合教會, 聯合프로테스탄트協會등 4, 5개의 교파가 東·西獨 教區를 포함하여 단일성을 유지하여 왔으며 1957 이전까지는 教會責任者나 신도들의 往來가 있었으나 차츰 東獨이 相互交通往來를 제한함에 따라 宗教交流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東獨은 그 憲法에서 宗教의 自由를 保障한다고 規定되어 있으며 新教徒로 구성된 基督教民主黨이 있으나 政治的 目的에 이용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共產主義體制下에서는 一般的으로 無神論的 경향이 支配的이다.

東獨은 베를린障壁을 구축한 이후 獨逸福音教會 理事會 會長이며 教區牧師인 샤르프를 西獨으로 추방하는 동시에 西獨에서 개최되는 同 教會理事會와 代議員會에 東獨代表를 불참시킨바 있으며 1967년 2월 샤르프會長이 東獨 자선교구장 요하네스에게 서한을 보내어

東·西獨이 동수로 참가하는 全獨逸福音教會 理事會 구성을 제의하였으나, 東獨當局이 兩獨間의 教會關係를 차단하고 基督教이 共產主義教理와 兩立할 수 없다는 原則을 내세워 教人間的 접촉을 금지하였다.

東·西獨間 基本條約 체결이후 雙方間 交流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東獨側은 宗教的 交流問題에 있어서는 政治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나. 東·西獨間 스포츠交流

東·西獨間 社會·文化交流中 가장 활발한 교류는 스포츠交流인데 실제로 1982년엔 27개 스포츠종목에서 78회의 스포츠交流가 있었다.

1. 東·西獨間 스포츠交流協定⁵⁾

현재까지 推進되고 있는 東·西獨間 스포츠交流는 1974년 5월 8일에 체결된 양독간 「스포츠議定書」(Sportprotokoll)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지만 그 시초는 東·西獨政府가 수립된 1949년에 民間團體, 즉 「스포츠協會」에 의하여 개척이 되었다. 그러나 東獨政府는 이 스포츠交流를 政治적으로 악용하려 함으로써 1952년 9

註5) H. Krebs : Deutsch-deutscher Sfortverkehrs zwischen Unge-nügen und Hoffnung, Deutschland Archiv, 1982년 2호, pp.117 ~ 120 과 DDR-Handbuch (註1), pp.1019 ~ 1020 참조.

월에 잠시 중단되었었다.

그후 東·西獨政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956년의 멜본 (Melbourne) 올림픽大會, 1960년도 로마 (Rome) 올림픽大會 그리고 1964년도 東京올림픽大會 등 3번에 걸쳐 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하여 118개의 올림픽메달을 획득하였지만 이는 국제적 스포츠活動으로 평가할 뿐 東·西獨間 스포츠交流로는 보지 않고 있다.⁶⁾

특히 1960년 4월엔 東獨이 東·西獨 스포츠交流時 東獨 운동선수들에게 東獨代表 運動服 착용을 결정하자 西獨이 東獨과의 스포츠交流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함으로써 東獨이 결정을 취소, 兩獨 스포츠팀은 차후 國家 상징이 아닌 스포츠협회표를 달기로 합의를 보았고 현재도 이 原則이 준수되고 있다.

그러나 東獨 「울부리히트」 (Ulbricht) 政權이 經濟政策에 실패, 1961년 8월 伯林障壁을 축조하는가 하면 東·西獨間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스포츠交流는 확대될 수 없었다. 특히 東獨 體操 및 스포츠協會 (DTSB)는 1965년에 그리고 西獨스포츠協會 (DSB)는 1966년에서 70년 사이에 6회에 걸쳐 양독간의 스포츠交流에 관한 會談을 제안하였으나 성공치 못했었다. 그러자 西獨政府가 중계자 역할을 함으로써 1973년 3월엔 東獨 「드레스덴」 (Dresden)에서 그

註6) 上同 및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편) : Zahlenspiegel Bundesrepublik Deutschland /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Ein Vergleich, Bonn, 1982, pp.87 ~ 88 참조.

리고 같은해 5월엔 西獨 「푸랑크푸르트」(Frankfurt/M)에서 東獨과 西獨스포츠協會代表가 會談을 재개한 결과, 1974년 3월 20일엔 소위 「獨逸體操 및 스포츠協會(東獨)와 獨逸스포츠協會(西獨)間 스포츠關係 規律에 관한 프로토콜」에 합의되었으며, 특히 1974년 5월 8일 東獨의 수도 東伯林에 있는 호텔(Hotel Stadt Berlin)에서 兩獨 스포츠協會 代表가 정식조인함으로써 兩獨間 스포츠交流는 정상화되었다.

2. 東·西獨間 스포츠交流現況

東·西獨間 스포츠交流는 1974년 이후 매년 東獨의 「獨逸體操 및 스포츠協會」와 西獨의 「獨逸스포츠協會」間에 交流種類와 회수에 합의를 봄으로써 進行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交流現況은 다음과

<도표 1> 東·西獨間 스포츠交流의 回數(1974~1982)

年 度	合 意 會 數	取 消 回 數	開 催 回 數
1974	40	-	40
75	62	9	53
76	62	3	59
77	68	6	62
78	73	-	73
79	75	7	68
1980	76	20	56
81	?	7	?
82	80	2	78

[資料] DDR - Handbuch, p.1020, Deutchland Archiv, 1982년 2호, p.117과 1983년 3호, p.230.

같다.

그러나 東·西獨間 스포츠交流는 많은 제약을 받아 기대하는 만큼 활발한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西獨의 「獨逸스포츠協會」會長인 「기제러」(K. Gieseler)의 설명에 의하면,

- (1) 東獨의 東·西獨 스포츠交流에 있어서의 活動範圍 制限問題
- (2) 東獨은 이런 스포츠交流에 있어 게르만民族間的 교류보다는 스포츠의 승리에만 관심
- (3) 東獨의 「獨逸體操 및 스포츠協會」산하 기관들의 다른 혼련 분위기문제
- (4) 政治 내지는 財政的인 관점에서 본 東獨體操 및 스포츠協會와 다른 社會主義國家들과의 스포츠交流問題
- (5) 東獨의 最高水準級 스포츠선수들만이 交流希望

등등이 정상적인 東·西獨間 스포츠交流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⁷⁾

그러나 西獨은 이런 스포츠交流를 통해 東·西獨間 관계를 더욱 정상화시키는 民族間 交流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 양독간 스포츠交流 개설시 東獨이 반드시 우승할 스포츠種目만을 제안함으로써 東獨이 호응하도록 유인하였다는 점은 다 알려진 비밀아닌 비밀인 것이다. 다시말해 東·西獨間 스포츠交流는 西獨의 統一政策인 Deutschlandpolitik 에 기본 바탕을 두고 있는 셈이다.

註 7) H. Krebs (註 5), p.119 참조.

3. 東·西獨間 스포츠交流의 特徵

東·西獨間 스포츠交流의 特徵은 社會·文化交流의 特徵과 흡사한데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1) 民間스포츠機關間的 交流

東·西獨間 스포츠交流는 선수들이 비록 國家代表級の 최고급 선수들이라 하더라도 主權, 主管이 純粹民間團體로써 西獨은 「獨逸스포츠協會」(Deutscher Sportbund, DSB)와 東獨의 「獨逸體操 및 스포츠協會」(Deutscher Turn- und Sportbund = DTSB)가 맡고 있다. 다시말해 兩獨政府는 스포츠交流에 있어서 필요한 法的 내지는 財政的 지원을 하지만, 원칙적으로 民間스포츠機關의 활동에 간섭을 하지 않은 것이 東·西獨間 스포츠交流의 첫째 特徵이다.

(2) 게르만民族的 矜持強化

東·西獨間 스포츠交流의 제 2 特徵은 이 스포츠交流가 양獨關係의 정상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게르만民族的 民族的 矜持強化에 절대적인 貢獻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은 東·西獨間 스포츠交流는 西獨의 입장에서 볼 때 東·西獨間 긴장완화를 통한 분단의 해소라는 점에서 스포츠競技의 우승보다는 東·西獨間 게르만民族間 和合이 더욱 중요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능한 한 더 많은 스포츠交流를 하기위해 西獨은 노력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東獨의 스포츠선수들이 세계적인 스포츠競技에서 그 우수성을 공인받기 시작하자 東·西獨은 분단체 살기는 하지만 게르만

民族이라는 民族的 矜持를 재발견했던 것이다. 한 예로써 1965~79년간 유럽陸上競技大會에서 우승한 國家는 하기 <도표2>가 보여주듯이 소련이 3번에 불과한데, 東獨은 9번 우승함으로써 게르<도표2> 유럽陸上選手權大會 優勝國家 (1965~79)

年 度	男 子		女 子	
	優 勝	準 優 勝	優 勝	準 優 勝
1965	蘇 聯	西 獨	蘇 聯	西 獨
1970	東 獨	蘇 聯	東 獨	西 獨
1973	蘇 聯	東 獨	東 獨	蘇 聯
1975	東 獨	蘇 聯	東 獨	蘇 聯
1977	東 獨	西 獨	東 獨	蘇 聯
1979	東 獨	蘇 聯	東 獨	蘇 聯

[資料]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Hrsg) : Zahlenspiegel - Bundesrepublik Deutschland /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Ein Vergleich 1982, p.88.

만民族의 잊지 못할 敵國인 蘇聯을 무기가 아닌 스포츠로 타도했던 것이다. 물론 그 結果는 게르만民族의 矜持強化이자 東·西獨間 긴장완화였다.

(3) 스포츠交流의 非政治化

東·西獨間 스포츠交流의 3번째 특징은 이 교류의 非政治化이다. 다시말해 東獨政權은 이 스포츠交流도 政治的 도구로 악용하려고 수차 시도하였으나 西獨의 「獨逸스포츠協會」가 교류자체를

지연시키면서까지 이에 불응하였던 것이다. 그결과 東獨政府는 스포츠交流의 政治的 악용시도를 포기, 東獨의 「獨逸體操 및 스포츠協會」가 이 스포츠交流를 전담함으로써 오늘까지 양독간 스포츠交流는 성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다. 東·西獨間 郵便 및 電信交換

獨逸은 분단이 되었지만 東·西獨 國民들은 상호방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南北韓間 상호방문은 현시점에선 거의 불가능하므로 우선 가능한 郵便交換, 특히 성공적으로 발전한 東·西獨間 郵便交換을 조사·分析키로 한다.

1. 東·西獨間 郵便·電信交換協定⁸⁾

1966년말 東獨政府는 西獨遞信部와 西伯林(西Berlin)市政府에게 국제관례대로 郵便 및 電信使用料로 18억마르크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西獨遞信部는 東獨에게 1967년 이후 동독체신부의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안했던 것이다.

그후 1968년 10월과 1969년 2월에, 1967년과 1968년 초반기 費用補償費로 東獨遞信部에 2,200만마르크를 지불함으로써 1969년 9월 19일 東·西獨間 第1次 電信交換協定會談이 개최될 수 있었다. 그결과 1970년 4월 29일에는 첫번째 합의에 이어서 1971년 9월 30일 「郵便 및 電信關係議定書」가 체결되었던 것이다.

註 8) DDR - Handbuch (註1), p.207 참조.

이로써 東·西獨間 郵便交流가 강화되었고 동시에 西獨이 東獨에게 郵便 및 電信使用料로 매년 일정금액을 지불키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특히 1972 년도에 체결된 「東·西獨 基本條約」 第7條에 의하면 東獨과 西獨은 郵便, 通信 그리고 전신분야의 협조를 위한 회담을 개최키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같은해 12월 7일에 東·西獨間 郵便交換 協定會談을 소집하였는데 3년이란 긴시간 동안 24차의 회담을 거쳐 兩獨逸政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협정, 다시 말해서

- (1) 郵便·電信制度 및 郵便交換에 관한 協定
- (2) 電信交換에 관한 協定
- (3) 郵便 및 電信中繼料에 관한 協定

등을 체결하였는데, 이 東·西獨間 郵便 및 電信協力協定은 무기한이며 1976년 7월 1일에 발효하였다.

이와 동시에 東·西獨間 전화선도 1969년의 34선에서 1976년에 719선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1978년말엔 941선이 되었다. 그리고 1977년 10월 19일자 합의에 의하면 東·西獨間 郵便 및 電話交換을 위한 東獨遞信部の 확장사업에 대한 비용부담과 702전화선을 확장키로 되어있는데 특히 1977년부터 1982년까지 매년 120전화선을 신설 확장하는 동시에 서독은 東獨에게 같은 기간동안 매년 8,500만마르크의 경비를 지불키로 합의를 보았다. 이렇게 하여 1984년에는 전화선수가 1,517個 회선으로 늘어났다.

2. 東·西獨間 郵便·電信交換現況

현재 東·西獨間 郵便 및 電信交換은 거의 정상화 되어있는데 東·西獨間 郵便交換量은 1980 년도를 예를 든다면 西獨에서 東獨으로 7,500 만통의 편지와 2,700 만개의 소포가 발송이 되었으며 東獨에서 西獨으로는 7,000 만통의 편지와 900 만개의 소포가 발송이 되었다. 다시말해 郵便交換의 수는 東·西獨이 거의 비슷하나 소포교환에 있어서 西獨에서 東獨으로 발송된 양이 3 배가 많다는 사실은 經濟的 곤란을 받고있는 東獨에 거주하는 家族이나 친지에게 經濟적으로 부유한 西獨國民들이 더 많은 소포를 보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도표 3>

東·西獨間 電信交換數

(단위 : 1 만번)

年 度	東 · 西 獨	東 · 西 伯 林
1970	70	-
72	510	80
74	610	270
76	1,130	740
78	1,670	830
80	2,300	950

[資料] DDR - Handbuch, p.207 과 Zahlenspiegel 1982, p.93 참조.

이와 동시에 東·西獨間 電信交換도 확대되었는데 실제로 1969 년엔 東·西獨間 통화회수가 50 만번에 불과하였던 것이 1980 년도엔 상기 <도표 3>이 보여주듯이 東·西伯林間에는 950 만번을 포

함해서 통화회수는 무려 2,300 만번으로 확대되었다.⁹⁾

3. 東·西獨間 郵便·電信交換의 特徵

東·西獨間 郵便·電信交換의 특징은 東·西獨政府가 이런 교환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상호협력하고 있다는 점이며, 특기할 점은 양독간 遞信事業에 필요한 技術開發 및 設備擴張에 필요한 비용을 西獨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과 東獨政府가 이런 郵便·電信交換을 政治的 수단으로 악용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東·西獨政府가 共產主義體制의 지지와 반대하는 政治思想的 대립이 있다손치더라도 분단된 게르만民族의 비극을 악화시키지는, 실례로 東·西獨間 이산된 家族間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郵便 내지는 電信交換手段을 고수할 뿐만 아니라 확대하는데 협력하고 있다는 政治的 사실을 우리는 높이 평가를 해야만 할 것이다.

註9) Zahlenspiegel (註6), p.93 참조

Ⅲ.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

우리 南北韓은 東·西獨과 같이 1945年, 다시말해 2次世界大戰以後 分단이 되었다. 그러나 東·西獨과 비교할 적에 수차에 걸쳐 社會·文化交流를 위한 南北韓政府間 접촉이 있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점이 그 특징이다. 여기에 東·西獨間 社會·文化交流를 모델로 한 南北韓間 교류의 研究資料로서 실패한 南北韓間 접촉을 요약해 본다.

가. 南北韓間 文化·藝術交流

南北韓間 文化交流를 최초로 제안한 것은 1976年 4월 12일 南北調節委員會 韓國側 委員長代理 張基榮이 北韓側 委員長 金英柱에게 電話通知文으로 南北韓間 古美術品 상호교환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民族의 功績을 후대에 심어주고 그 슬기를 海外에 널리 소개하기 위해 南北調節委員會의 주선으로 南北古美術品 및 考古學 資料의 交換展示會를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아울러 共同展示會도 雙方이 합의하는 해외지역에서 개최하자」¹⁰⁾

그러나 北韓側이 이 제안에 불응함으로써 이렇다 할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자 1981年 11월 17일 李光杓 文公部長官은 다

註10) 조선일보, 1976. 4.13일자 참조.

시 北韓에게 文物交換을 제안하였는데 그 內容은 南北韓이 考古學 및 美術史分野에서의

- (1) 資料의 상호교환
- (2) 서울과 평양 내지는 海外展示
- (3) 南北韓間 共同研究
- (4) 南北韓, 日本 그리고 中共間的 共同研究

들이었다. 그러나 北韓의 불응으로 아무런 결과를 못했던 것이다.

특히 1982년 2월 1일 孫在植 國土統一院長官은 북한측에 韓半島 緊張緩和를 위한 20개 示範實踐事業을 제의하였는데 그중 第3項은 「雪嶽山以北과 金剛山以南地域을 觀光·休養地로 설정하여 自由觀光 共同地域으로 개방」할 것과 第12項은 「民族文化의 계승·발전을 위한 民族史의 공동연구」제안이었다.¹¹⁾

그러나 北韓은 韓國政府의 文化·藝術交流 제안을 항상 한국이 용납할 수 없는 政治的 이유를 내세워 불응함으로써 아무런 발전도 가져올 수가 없었다.

나. 南北韓間 스포츠交流

韓半島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南北韓協商은 國土分斷即後 시작이 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스포츠交流問題에 관한 접촉이 가장 많았고 또

註 2) 조선일보, 1982. 2. 2일자 참조.

한 오랜 접촉이었다. 예를 든다면 南北韓間 스포츠交流를 위한 南北協商은 1956년도 「멜본 (Melbourne) 올림픽」大會以後 성공적으로 발전중이던 東·西獨 단일올림픽팀에 영향을 받아 1963년 1월 29일 스위스 로잔느 (Lausanne) 에서 개최되었던 제 18회 東京올림픽派遣 南北韓單一팀 구성을 위한 南北韓體育會談이 그 시초인데 비록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體育分野에서의 南北協商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南北韓間 스포츠交流
2. 南北韓 卓球단일팀 構成問題
3. 南北韓 올림픽단일팀 構成問題

1. 南北韓間 스포츠交流問題

南北韓間 스포츠交流問題에 관한 최초의 南北接觸은 1976년 5월 6일,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개최되었던 제 18회 아시아靑少年 축구대회시 大韓蹴球協會 金潤河 會長이 北韓蹴球팀 김종형 단장에게 南北韓 蹴球交流를 제의함으로써 열렸던 「방콕 라자호텔會談」인데 그 당시 한국은 북한에게 國家代表팀은 물론 靑少年代表팀, 實業代表, 大學 및 高校代表팀간의 축구교류를 제안하였는데 北韓은 후에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회신이 없었다.¹²⁾

그러자 1979年 3월 9일, 板門店中立國監督委員會 회의실에서 열린

註12) 조선일보, 1976. 5. 7일자 참조.

제 3 차 南北韓 卓球 단일팀 構成問題會談에서 大韓卓球協會 채영철 회장은 북한측 탁구협회 김득준 회장에게 南北韓間 전반적인 體育交流問題 協議를 제안하였으나 反應이 없었고 다시 1980년 1월 29일 大韓 올림픽委員會 박종규 위원장은 「과거의 經驗과 外國의 先例에 비추어 올림픽大會 참가를 위한 南北韓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 쌍방간에 상당한 信賴의 축적과 상호 경기실적이 필요하니, 우선 전반적인 南北韓 體育交流를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특히 韓國側은 北韓에 대하여 「더이상 非現實的이고 불합리한 논란을 그만두고 우선 손쉬운 南北韓間의 體育交流를 실시하는데 동의함으로써 體育을 통한 相互信賴 조성과 民族的 同質性 회복에 기여하고, 나아가 5천만 겨레가 염원하는 分斷祖國의 平和統一을 위한 기반조성에 이바지하는데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¹³⁾

그러나 北韓은 政治的 선전만 일삼을 뿐 한국의 제안에 불응하는 태도를 계속 고수하자 1981년 6월 19일 大韓올림픽委員長兼 大韓體育會長은, 체육분야에서의 南北韓間 交流와 협력을 통해 부분적 이나마 서로의 社會를 상대방에게 개방하여 民族的 信賴回復에 기여하며 특히 1980년대의 각종 國際競技大會에 南北韓 體育인들이 각 종목에 걸친 親善競技를 위시한 體育交流를 활발히 실시하며 서로의 기량을 연마하여 國際競技 단일팀으로 참가, 民族的 和合의 계기를 조성키 위해 1984년 L.A 올림픽과 가능하면 그 이전이라도 각종 國際競技大會에 南北韓 단일팀으로 참가할 것을 북한에게 다

註 13) 조선일보, 1980. 1.30 일자 참조.

시 제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이 제의에 대하여 일체의 공식反應을 나타내지 않다가 약 2個月 뒤에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中央委員會 第67次會議」를 開催한 후 南北韓間 民主統一促進大會를 열어 南北統一方案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면서 韓國의 「國際競技 단일팀 구성 및 참가문제도 전반적 合作과 교류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야만 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韓國의 제의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물론 韓國은 民族分斷의 비극을 극복하고 말겠다는 民族愛的 政策에 따라 비록 北韓이 非友好的 反應만을 고수하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호응하기를 기대하여 새로운 제안을 계속하고 있는데, 가장 근래의 예로는 1982년 2월 1일 孫在植 國土統一院長官은 對北聲明에서 20개 示範實踐事業을 제의하는중 제 13항에서 「南北韓間 각종목별 體育親善交換競技를 개최하며 각종 國際競技大會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자」고 제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불응했다.¹⁴⁾

2. 南北韓 卓球單一팀 構成問題

南北韓 스포츠交流問題中 제 2형태는 평양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 參觀할 南北韓 卓球단일팀 構成問題인데, 1979年 2月 27日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에서 제 1차 南北韓 卓球協會代表會議가 開催되었는바, 그당시 雙方提議 및 主張內容을 보면 韓國側 提案은

註14) 조선일보, 1982. 2. 2일자 참조.

- (1) 南北韓 탁구단일팀 구성에 최선의 努力 경주를 促求
- (2) 대진표 추첨일이 3월 14 ~ 15일이므로 늦어도 3월 12일까지 단일팀을 구성할 것
- (3) 단일팀 구성이 1979년 3월 12일까지 실패할 경우 韓國卓球選手團이 板門店을 통과하여 平壤大會에 參加토록 보장할 것.
- (4) 이번 기회에 단일팀 構成問題를 포함, 전반적인 南北韓 體育交流가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이에 대한 北韓側 제안은

- (1) 단일팀 구성의 原則問題 토론을 배제하고, 팀구성 절차문제 토의를 할 것.
- (2) 선수 선발은 개인등위로 선발하고
- (3) 平壤에서 共同訓練을 하며
- (4) 선수단 호칭문제를 거론하자

등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첫날 회의는 쌍방이 基本立場을 서로 밝히고 상대방의 의도를 탐색하는 정도로 끝났다.

1979년 3월 5일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에서 제 2차 南北韓 卓球協會代表會議가 다시 개최되었는데 그당시 한국측 대표의 제안내용은

- (1) 韓國卓球選手團 大會參加. 선보장 요구
- (2) 대진표 추첨일 (3월 14 ~ 15일)를 고려, 3월 12일 이전까지 단일팀 구성을 촉구 할 것

등 이었는데 이에 대해 北韓側은

(1) 단일팀으로 참가할 것을 강조

(2) 단일팀 구성절차 및 훈련과정문제만 제기

하였다. 이런 관계로 韓國과 北韓代表들간 서로의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거듭하면서 단일팀 구성의 대의명분과 의의만을 강조하는 北韓側의 宣傳攻勢 때문에 韓國側 選手團의 平壤大會 參加保障問題와 단일팀 構成問題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로써 제 2차 南北韓 卓球單一팀 構成問題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韓國側의 성의있는 노력으로 1979년 3월 9일 판문점에 있는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에서 제 3차 南北韓 卓球協會代表會議를 가졌는데, 雙方側 제의와 주장내용을 요약한다면 우선 韓國側은

(1) 南北韓 體育에 있어서 전반적인 交流原則 제기

(2) 단일팀 構成外에 韓國選手團 平壤大會 참가도 함께 실현을 촉구한데 비해,

北韓은,

(1) 韓國팀의 單獨參加는 반대하며

(2) 南北韓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韓國側은 이 會談에서 平壤 世界選手權大會에 韓國팀의 參加先保障을 거듭 강조하는데 대해 北韓이 南北韓 單一팀構成問題만을 주장함으로써 진정한 토의를 해보지도 못하고 12일에 다시 만나자고만 합의를 한채 폐회를 하였다.

그래서 약속한 1979년 3월 12일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

에서 제 4 차 南北韓 卓球協會代表會議가 열렸는데 그때 韓國側은

- (1) 韓國選手團의 平壤 世界卓球選手權大會 參加保障을 촉구하고
- (2) 南北韓 體育交換競技를 6월이나 7월에 서울과 平壤에서 개최하고
- (3) 關聯代表會議를 5월중에 개최하자.

고 제안하자 북한은 韓國選手團의 平壤大會參加 先保障要求는 회담 분열의 의도라고 비난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제 4 차會議도 3 차회의 때와 같이 서로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다가 끝났는데, 韓國側 채영철회장이 「17일까지 韓國의 平壤大會 參加既得權을 보장한다는 聲明을 발표하라」고 요구하자 北韓側의 김득준 회장은 「17일에 5次會議를 다시 갖자」고 응답함으로써 合意點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次期會談日字의 약속도 없이 閉會되었고, 南北韓 卓球單一팀構成을 위한 南北韓 卓球代表會議은 完全히 失敗하고 말았다.

3. 南北韓 올림픽單一팀 構成問題

(1) 「東京올림픽」派遣單一팀 構成問題

南北韓間 올림픽單一팀 構成問題가 논의되기는 1963년 1월 24일 스위스 「로잔느」에서 개최된 제 18 회 東京올림픽大會에 倂견한 南北韓 單一팀構成問題會談이 그 시작이었는데 제 1 차 會談時 韓國側 主張은

- (1) 南北單一팀 構成會談의 성의 促求
- (2) IOC總會의 권고를 존중한다.

등이었으며, 北韓은

- (1) 南北單一팀 構成엔 原則적으로 동의하되
- (2) 次期會談은 板門店 또는 서울이나 平壤에서 속개하자.

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제 1차 南北體育會談에서는 「올림픽大會에 派遣할 南北韓單一팀 構成原則」을 포함해

- (1) 國旗問題는 IOC에 위촉한다.
- (2) 國家는 아리랑으로 한다.

등 原則問題만 合意를 보았던 것이다.

제 2차 올림픽관계 南北韓體育會談은 1963년 5월 17일 「홍콩」의 「페닌슐라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韓國側의 「政治的 惡用排除 要求」주장에 대한 北韓側의 「韓國非難發言」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 會談에서는

- (1) 全種目 예선은 關聯體育團體別로 접촉 실시하며
- (2) 財政은 各자 부담하고
- (3) 제 3차 會談의 場所와 時日은 추후 결정 통보한다는 점 등에 合의를 보았다.

그래서 1963년 7월 26일 홍콩의 「페닌슐라호텔」에서 제 3차 南北韓體育會談이 개최되었으나 韓國側이 「北韓側 團長 김기수가 1次會談이 끝난 뒤 韓國은 단일팀 구성엔 성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會談조차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등 韓國을 非難하는 허위내용을 신문에 보도하였으니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하자 北韓 代表들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東京올림픽大會에 派遣할 南北單一팀 構成을 위한 南北韓體育會談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

았다.¹⁵⁾

(2) 「모스크바올림픽」 派遣單一팀 構成問題

1979년 12월 20일 北韓은 1980년 제 22회 모스크바올림픽에 南北韓單一팀 構成을 위한 南北韓 體育人會談을 제의하였으나 韓國은 1979년 北韓이 제 35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 韓國選手團을 배제시키기 위해 南北韓 體育人會談을 악용한 전례를 감안, 北韓의 제의를 거부하였다.¹⁶⁾

(3) 「로스앤젤레스올림픽」 派遣單一팀 構成問題

1984년 4월 9일 南北韓 體育代表들은 板門店에서 로스앤젤레스올림픽大會에 파견할 南北韓單一팀 構成을 위한 제 1차 회담을 개최하였는데 韓國側은 우선 북한에 버마 暗殺테러事件의 責任을 추궁한 후, 會談議題로서

- ① 로스앤젤레스올림픽大會를 비롯한 86년 아세안게임과 88년도 서울올림픽大會를 위한 南北韓單一팀 구성
- ② 4월부터 南北韓間 親善交換競技 제의
- ③ 선수들의 신변안전 보장

등을 제안하자 북한은 「버마暗殺爆發事件」의 責任을 회피한 후 로스앤젤레스올림픽大會에 파견할 南北韓單一팀 構成問題 토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종규 韓國首席代表는 南北韓單一팀 구성을 위한 다음과

註15) 북한총람,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1983, p.1425~26 참조.

16) 북한총람,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1983, p.1426 참조.

같은 7개사항을 제의하였는데 그 7개사항이란

- ① 選手選拔問題
- ② 選手 및 任員構成問題
- ③ 選手管理問題
- ④ 選手團經費는 공동부담
- ⑤ 남북한단일팀의 團旗
- ⑥ 남북한단일팀의 團歌
- ⑦ 남북한단일팀의 呼稱問題

등이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韓國提案에 대한 답변에 앞서 랭군暗殺 테러事件에 대한 韓國側 항의를 政治的 介入이라고 비난한 후 會議場을 일반적으로 나가버려 제 1차 회담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제 2차 南北韓 體育代表會談은 1984년 4월 30일에 판문점에서 다시 개최되었는데 韓國이 버마 랭군暗殺테러事件에 대한 책임추궁후 選手團의 신변안전 보장문제를 강조하자 북한은 南北韓單一팀 관계에 관한 會談만을 주장, 會議場을 退場함으로써 또다시 실패를 하고 말았다.

그후 5월 25일에 판문점에서 제 3차 南北韓 體育代表會談이 개최되었으나 회의벽두부터 北韓側은 버마 랭군暗殺테러事件은 「조작극」 운운하면서 非協調的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본질적인 議題討論도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폐회되었다.

그래서 大韓올림픽委員會 정주영 회장은 5월 29일 제 4차 南北韓 體育代表會談을 6월 1일에 재개할 것을 北韓에게 제의했으나 北

韓側이 이에 호응을 하지 않아 유산되고 말았다.

(4) 「서울올림픽大會」를 위한 南北韓單一팀 構成問題

韓國은 88년도 서울올림픽에 출전할 南北韓單一팀 구성을 위해 현실적인 기회가 오는대로 새로운 南北韓會談을 제의할 것이라는 7월 22일자 노태우 서울올림픽組織委員會 委員長의 선언이 있은지 약 1개월후인 1984년 8월 17일 정주영 大韓體育會長兼 大韓올림픽委員會 委員長이 南北韓體育會談을 8월 30일에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 北韓側은

- ① 지난 3개월간 體育會談이 中斷된 점에 대한 책임을 韓國에 전가한 후
- ②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 南北韓單一팀을 파견치 못하는데 대해 韓國은 사과하고
- ③ 韓國은 앞으로의 體育會談을 政治的 目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라.

등 요구를 하면서 韓國側 提案을 정식으로 거부했다.

다. 南北韓間 郵便 電信交換

南北韓間 郵便·電信交換은 1945년 國土分斷後 모스크바 3相會談의 결과로 이루어진 南北韓 地域間交易과 같이 시작이 되었다가 1950년 4월, 다시말해 6.25 動亂 발생 2개월전에 중단이 되었다.¹⁷⁾

註17) Youn - Soo Kim (Homogenität und Heterogenität in der Politik Geteilten Staaten Deutschland und Korea, Kiel 1984 참조.

1971년 8월 12일 崔斗善 大韓赤十字社 總裁는 特別聲明을 통해 1千萬 離散家族들의 人間的 苦痛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再結合을 目的으로한 南北赤十字會談을 제의함으로써 南北赤十字會談이 이루어졌다.

韓赤은 離散家族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최소의 방법으로 南北間의 書信往來와 生死確認만이라도 成就시키려 하였으나 北赤側의 反民族的, 反人道的 態度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못했다. 南北會談 進行과 함께 20여년만에 南北間에 架設된 直通電話도 北韓側의 對話中斷으로 斷切되었는바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1971년 9월 20일 赤十字 第1次 豫備會談에서 南北赤十字 雙方이 板門店 「자유의집」과 「板門閣」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直通電話 2회선을 가설키로 한 합의에 따라 동년 9월 22일 처음으로 가설되었고 그후 赤十字豫備會談이 진행되는 동안 高位層의 平壤訪問을 위한 쌍방 실무자의 비밀접촉에서의 合意에 따라 1972년 4월 29일 서울·平壤을 잇는 南北直通電話가 非公開裡에 開通되었다.

곧이어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의 平壤訪問에서 남북간의 예기치 않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간에 수시로 通話할 必要性을 強調하고 北側이 이에 同意하여 南北共同聲明 發表와 同時에 이의 設置를 發表함으로써 公式化되어 南北間에는 會談용으로 赤十字社間, 調節委員會間에 23回線이 가설 운영되어 왔다.

이같은 南北直通電話는 會談開催에 따른 그때 그때의 節次協議와

高位層의 秘密訪問 實現, 南北共同聲明 發表에 크게 공헌하였고 특히 휴전선에서의 총격사건, 東海上에서의 어부 및 어선납북사건 등 남북간의 예기치 않은 돌발사태가 發生하였을 때마다 협의통로로써 重要한 役割을 해왔으며 1973년 8월 28일 북한측의 一方的인 對話 中斷宣言으로 南北對話가 교착상태에 빠진 뒤에도 계속 運用되어 왔다.

그러나 南北分斷 4半世紀만에 開通을 보게된 南北直通電話는 1976년 8월 18일 소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직후인 1976년 8월 30일 북한이 東海에서 우리 漁船 第3新進號를 납북해감에 따라 이의 송환을 協議하기 위하여 韓赤側이 電話通知文을 發送코자하였으나 北赤이 이의 接受를 拒否함으로써 南北直通電話 23回線은 모두 杜絶되었고 斷片的으로 개최된 南北對話 過程에서 一時的으로 電話가 連結되기도 하였으나 北側이 對話를 中斷시킴에 따라 電話線도 斷絶되곤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孫在植 國土統一院長官은 1982년 2월 1일 「20개 示範實踐事業」을 北韓에게 제안하는 가운데 第2項에서 「南北 離散家族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郵便交流를 하자」고 제의한바 있으나 南北間에는 郵便, 電話, 電信등 一切의 交流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V.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方案

우리는 지금까지 東·西獨間의 成功的인 社會·文化交流의 發展過程, 現況 그리고 특징을 제 2장에서 규명한 후 제 3장에서는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의 現實을 요약 조사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는 解放直後 몇년간 실천한 經驗이 있는 郵便交換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발전을 못하고 있는 사실을 確認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南北韓은 社會·文化의 交流方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成功的인 東·西獨間 社會·文化交流 方法을 모델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점에서 本 研究의 結論으로써 東·西獨間 社會·文化交流를 모델로 한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 方案을 제의 검토해 보겠다.

가.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의 前提條件

우리는 지금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의 方案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南北韓關係의 現實을 엄격히 분석·검토를 해 본다면 이런 社會·文化交流의 前提條件이 造成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다시말해 南北韓은 현재 社會·文化의 교류를 할 준비가 안됐다. 이런 점에서 南北韓政府가 진정으로 이런 교류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前提條件을 해결해야만 한다.

1. 民族和合을 위한 民族主義的 政策開發

오늘날 韓國의 全斗煥大統領은 民族和合과 正義社會 具現을 2大 政治的 目標로 결정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韓國과 北韓間의 「感情的 對立」은 물론 한국내 경상도와 전라도간 「地域的 對立」등 「제 2의 3國時代」를 이루고 있는 동시에 國民의 대정부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韓國의 對北韓 社會·文化 交流政策은 백성들이 그러한 交流目標가 분단된 韓民族 全體의 이익을 위하는 民族團合의 교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즉 신임을 받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 韓國의 南北韓 社會·文化 交流政策이 정권의 안정만을 위한 對內的 국민선전, 다시말해 北韓을 구실로 한 홍보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공인받아야 한다.

이러기 위하여서는 우선은 政府의 對北韓觀을 과감히 개선을 하여야만 한다. 다시말해 오늘날의 現實과 같이 北韓은 傀儡集團이요, 反民族的인 殺人테러集團이라고 國民들에게 선전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란 하나의 政治的 演劇이지 政策이 될 수가 없다.

이런 政治的 原則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계속되고 있는 反共的인 對北 宣傳과 民族的 和解를 목적으로 한 社會·文化交流중 하나를 택하여야만 한다. 다시말해 兩者擇一이지 양자병행은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東·西獨政府는 反共과 容共이란 政治路線을 엄격히 고

수하면서도 民族的 이익을 위해서는 政治思想的 對立을 포기하는 「게르만」(German) 民族主義的 政策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南北韓政府도 진정으로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을 원한다면 東·西獨政府와 같이 汎民族主義的 政策을 채택 발전시켜야만 한다.

2. 北韓의 社會·文化 開放

우리가 南北韓間 교류를 상대적이라고 볼 때 北韓의 社會·文化가 엄격히 閉鎖되어 있는 조건에서 과연 그러한 교류가 가능하겠는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을論하는데 문제가 없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의 前提條件으로서 현재 政策上 이유로 금지를 하고 있으며 또한 무서울 정도로 통제를 하고 있는 北韓의 社會·文化 實態를 韓國內에 소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실제로써 韓國政府의 資料나 宣傳에 의하면 北韓의 社會는 「韓民族의 원흉 金日成의 個人崇拜만을 위한 反民族的 共產集團社會」이며 文化는 「金日成·偶像化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文化」이다. 그렇다면 엄격히 말해서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한 韓國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韓國은 北韓의 社會·文化를 우리 國民에게 개방하여 자유스러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國民들이 이런 交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다시말해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 이전에 北韓의 社會·文化가 우리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나.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方案

우리는 위에서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의 2大 前提條件으로서 民族和合을 위한 汎民族主義的 政策開發과 韓國內 北韓 社會·文化의 개방을 제의했다. 그래서 이 前提條件이 해결된다면, 성공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東·西獨間 社會·文化 交流方法을 모델로 해서 다음과 같은 交流方案을 채택, 시도해 볼 수가 있다.

1. 政府가 아닌 民間次元에서의 交流

東·西獨間 社會·文化交流가 성공하는 첫번째 이유는 獨逸式 社會·文化交流를 政府가 아닌 民間機關에 의하여 計劃되고 執行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南北韓 交流가 되지 않은 것은 政府가 政治的 이유로 왜곡하였기 때문이다.

실례로 南北韓이나 東·西獨이 外勢에 의하여 분단이 된 점이나 분단 이후 분단된 地域間 交易이 성행하였던 점도 똑같다. 그러나 결정적인 韓·獨間의 차이는 東·西獨의 경우 1949년 2개의 「게르만半國家」가 수립이 되는 동시에 점령국인 美·蘇·英·佛이 관리하던 「占領地域間 交易」(Interzonener Handel)을 反共的인 아데나워(K. Adenauer) 政府는 內獨交易(Innerdeutscher Handel)으로 개발을 하였는데 南北韓의 경우 1948년 2개의 韓民族國家가 수립이 되는 즉시 反共的인 李承晚政府는 그간 성행중이던 「地域

間 交易」을 즉시 중단시켰는데 國內經濟人들의 강력한 항의로 2 개월후에 다시 허가하는 政治的 演劇을 했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北韓 金日成도 그당시 라디오放送이나 郵便交換을 政治宣傳手段으로 악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런 政治的 부작용이나 악용을 피하고 동시에 民族間의 和解를 위해서라도 東·西獨間 社會·文化交流 方法과 같이 政府가 아닌 民間次元, 즉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交流方案을 채택해야만 한다.

그래서 藝術, 學問, 스포츠 혹은 文化交流를 藝術人, 學者 또는 스포츠인이 초대를 하고, 초대를 받는 方法으로 해야만 한다. 다시말해서 藝術人이나 學者 내지는 스포츠인들에게 自主的 그리고 能動的인 活動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

2. 非政治的 社會·文化交流

東·西獨間 社會·文化交流의 2 번째 특징은 그 교류가 순수한 社會·文化交流, 다시말해 非政治的 교류라는 점이다. 그래서 스포츠交流를 실례로 든다면 東·西獨間 스포츠競技때는 國旗나 國名을 상징하는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다시말해 東獨의 「드레스덴」(Dresden)市 축구팀과 西獨의 「함부르크」(Hamburg)市 축구팀이 시합을 하는 경우 東獨과 西獨代表의 시합이 아니라고 규정, 운동복엔 市나 運動團體의 표식만을 달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政治的 악용이나 부작용을 처음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현명한 결정이다.

그러므로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도 순수한, 다시말해 非政治的인 交流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 (1) 스포츠交流는 國家代表팀간 경기보다는 大學이나 高교대표팀 또는 地域代表나 職業別 대표팀간 경기를 중심으로 교류함으로써 南北韓間 대립을 약화시키며,
- (2) 스포츠交流는 西獨이 東獨과의 스포츠교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택했던 方法으로, 北韓이 자신있는 스포츠경기를 우선적으로 교류함으로써 北韓의 韓國과의 교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어 경기를 확대해 나가며,
- (3) 藝術, 예로 美術 또는 文學作品 그리고 영화나 演劇公演 교류에는 非政治的 作品을 우선적으로, 예로 民族團합을 가져다 줄 고전적 작품들을 중심으로 교류함으로써 南北韓 國民들의 호응, 지지를 받도록 하고,
- (4) 學術分野에 있어서도 南北韓의 大립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분야, 예로 政治體制나 現代史 연구같은 學問의 교류보다는 非社會科學分野를 우선적으로 學術的 協力 내지는 교류를 개발 확대시키므로써 政治的 악용내지는 오해를 해소시켜야만 한다.

물론 上述한 예들은 한 두가지의 구체적 方案提示에 불과하지만 非政治的 社會·文化交流를 제안하는 이유를 실례로 들어 설명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南北韓間 經濟協力會談이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것과 병행하여 반드시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問題도 대두할 것이다.

왜냐하면 北韓과 같은 「社會主義國家」들은 자신들의 正統성과 合法性을 선전하기 위해 傳統文化와 藝術을 개발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그런 면에서는 자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가 시작되는 경우 北韓은 현재 향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市에 영화소를 설립한 후 활동하고 있는 우리 韓國의 代表的인 영화인이었던 申相玉과 崔銀姬가 今年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Praha) 國際映画祭에서 受賞한 자신들의 작품 「돌아오지 않은 密使」를 가지고 北韓 代表로서 서울에 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申相玉·崔銀姬를 통한 北韓의 大韓民國 文化交流政策은 韓國 國民들에게 제한된 기간이라도 北韓에 대한 평가기준에 混亂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韓國은 이와같은 北韓政策에 대해 좋은 方法은 수수한, 다시말해 非政治的 社會·文化의 南北韓 交流原則의 채택이다.

3. 間接的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

오늘날 南北韓關係는 이런 社會·文化交流를 불가능하게 생각할 정도로 非友好的이다. 이런 점에서 무리한 그리고 조급한 交流 試圖는 도리어 위험하다. 이런 점에서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政策도 근시안적이 아닌 長期的 안목에서 그리고 인기나 선전보다는 民族的인 관점에서 개발을 해야만 한다.

그런 이유에서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方案으로서 우선은 직접적

인 方法보다는 간접적인 社會·文化 交流 方案을 제의한다. 實例를 들
어 韓國의 映画나 서적이 北韓의 「友好國家」들인 蘇聯이나 中共
에서 소개된다면, 北韓도 이런 韓國映画나 서적에 대한 評가를 달
리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北韓의 영화나 서적이 韓國의 友好國
家인 日本이나 美國에 소개될 때에 韓國人이 接觸할 機會가 되므
로 후에 南北韓間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적에 國民이 받은 인
상이나 社會에 미치는 영향의 불안성이 제한 내지는 完化될 것이
다. 이런 점에서 南·北韓은 불안없는 직접적인 社會·文化 交流를
개발할 수가 있겠다.

V. 結 論

本 研究는 우선 성공적인 東·西獨間 社會·文化交流를 過程, 現況 그리고 특징을 조사·규명한 후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의 現況을 南北協商을 중심으로 점검해 보았다. 그리고 結論的으로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의 前提條件으로서

(1) 民族和合을 위한 汎民族主義的 政策開發과

(2) 北韓의 社會·文化 개방

등 두가지를 지적한 후 구체적인 교류방안으로서

(1) 政府가 아닌 民間次元에서의 교류

(2) 非政治的 社會·文化交流

(3) 間接的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

등 3가지 方法을 제안했다.

그러나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方案에 있어 결정적인 문제는 南北韓間의 敵對的인 관계와 불신관계의 해소이다. 이런 점에서 南北韓政府는 韓民族의 비극을 해소한다는 숭고한 使命感에서 이런 나쁜 관계를 해결하는 政策을 진정으로 개발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의 성공여부는 南北韓 政府의 意志 與否에 左右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專門家나 政府가 韓半島問題가 해결이 못되고 있는 책임을 韓半島周邊 4大國家 즉 美國, 蘇聯, 中共 그리고 日本의 政策에 전가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번 北韓側이 政略的으로 提起한 水災物資 提供提議에 대하여 韓國
側이 大局的 見地에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南北韓間에는 變態的인
物資交流가 이루어졌으며 南北韓間에는 經濟會談과 中斷되었던 赤十
字會談이 再開되고 있는바 이를 期하여 南北韓은 主體的인 立場에
서 社會文化交流를 積極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